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하지수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전자융합전공
파견 학기	2022-1, 2022-2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예나응용과학대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었고 3학년 때 국제교류도우미를 했었습니다.
국제교류도우미를 하면서 독일 예나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독일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겨서 예나 응용과학대로 교환학생 신청을 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준비는 상대교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일함을 수시로 보고 마감기한을 잘 지켜서 서류를 내면 됩니다.

비자는 독일 무비자 입국이 90일까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 받아도 되고 독일에 가서 발급 받아도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급을 받고 교환학생 연장을 해서 독일에서도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대사관 테어민(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예약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교환학생 합격이 되자마자 예약을 바로 잡는걸 추천합니다.

발급기간은 약 1달 정도이고 비자신청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들을 챙겨 가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1달 뒤쯤에 비자를 받아오면 됩니다.

독일에서 비자발급도 비슷합니다.

예나 외국인청에서 테어민을 잡고 서류들을 준비해가면 임시비자를 받게 됩니다.

임시비자를 한동안 들고 다니다가 다시 외국인청에 가서 비자카드를 받아 오면 됩니다.

저는 루프트한자를 타고 독일에 갔습니다.

직행으로 갈 수 있고 학생할인으로 위탁수화물 23kg 2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왕복 약 80만원이었고 귀국할 때는 비행 스케줄이 바뀌어서 프랑크푸르트-뮌헨-인천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수강신청은 상대교 홈페이지에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들이 적혀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청서에 써서 메일을 보내면 신청이 됩니다.

가끔 신청한 과목이 되지 않고 다른 과목이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분께 말하면 과목 신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Carl-Zeiss-Promenade 8인데 학교 바로 앞이라 좋고 마트도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린넨 패키지를 구매하면, 입주 시 기숙사에서 베개와 이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예나응용대학교는 금오공대랑 비슷한 크기이고 예나 도시 자체가 큰 편은 아닙니다.

기차 타고 30분정도 거리에 Erfurt 라는 도시가 예나보다 크고 쇼핑몰도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 드레스덴과 같은 큰 도시들도 기차타고 2~3시간정도 가면 돼서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 여름은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구매해서 생활했고 낮이 한국보다 덥습니다.

거의 오후 10시쯤에 해가 집니다.

겨울은 눈이 조금씩 왔고 아침에 해도 늦게 뜨고 오후 4시가 되면 해가 집니다.

겨울에 춥긴 하지만 방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 전기장판 없이 버틸 수 있을 정도입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독일 여름학기 개강은 4월이고, 겨울학기 개강은 10월입니다.

여름학기에는 Scientific Computing, German as Foreign Language II, Soft Skills 3과목을 수강했는데 독일어만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Scientific Computing은 전공과목이었는데 이론, 실험 수업으로 나뉘져 있었고 시험 치기 전에 교수님께서 예상문제를 주셔서 그걸로 시험공부를 했습니다.

German as Foreign Language II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팀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험은 따로 치지 않았고 과제 점수들이 합쳐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Soft Skills는 팀을 정해서 진행되는 수업이었고 시험을 따로 치지 않았습니다.

겨울학기에는 Electronic Hardware Systems, German as Foreign Language I,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과목을 수강했고 모두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Electronic Hardware Systems은 한 과목이지만 교수님이 2명이었습니다.

이론, 실험으로 구성이 돼있었고 시험 치기 전에 예상문제를 올려주셨습니다.

German as Foreign Language I은 교수님이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가장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이 수업은 아침 7시45분에 시작하는 수업이라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시험은 말하기 시험과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가 처음에는 191유로 정도였는데 255유로로 올랐고 보험비도 108->117유로로 올랐습니다.
통신비는 한달에 약 10유로 지출했고 슈페어콘토에서 나오는 861유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트 물가가 싸서 생활하는 데에는 충분한데 여행을 많이 다닌다면 부족합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한국 돈을 가끔씩 환전하면서 생활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파견교에 버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했었고 버디와는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버디는 메일로만 연락할 수 있어서 답이 느렸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시설 안내나 행정 처리 등 초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저 스스로 해야 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기숙사 옆에 멘자라는 학생식당이 있는데 토스카(학생증)로 계산해서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싸고 양도 많
았습니다.
메뉴는 3~4가지가 있고 거리가 가까워서 수업 끝나고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웬만한 스포츠는 다 있었습니다.
학생이면 저렴한 가격에 배워볼 수 있었지만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안멜둥이나 방송수신료와 같은 독일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우편으로 오고 답장도 우편으로 해야 해서 답
답할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 하지만 외국인청이나 경찰서에 있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공무원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해서 눈치껏 알아듣거나 구글 번역기를 써서 소통을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독일어를 공부해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택배를 시키면 보통 직접 전해줍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면 이웃에게 맡기거나 택배샵에 놓고 갑니다.

아마존 택배가 한번 분실된 적도 있었는데 cctv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택배가 온다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집에 있거나 룸메들에게 부탁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원래 영어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고 주로 한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냈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가 눈에 띄게 향상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영어를 사용했어야만 했기에 전보다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직접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해보니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고,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한 영어 회화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덕분에 생각만 해왔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걸 보면서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